

아마르티아 K. 센과 사회적 배제

Amartya K. Sen and Social Exclusion

Ann Nevile, 2007, Development in Practice, Vol. 17, No. 2

발제: 장지연 조합원

앙드리에즈 드 투와 Andries Du Toit (2004)는 만성적 빈곤이 종종 어떤 배제의 과정보다는 특히 불리한 조건 *disadvantageous terms* ('불리한 결합 *adverse incorporation*') 위에 결합된 *incorporated* 결과이기 때문에, 사회적 배제 *social exclusion*라는 개념이 개발연구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된다고 주장했다. 드 투와는 따라서 '배제 *exclusion*'와 '포함 *inclusion*'에 대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다른 종류의 권력이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더욱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글은 사회적 배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이미 단순한 '포함/배제'의 이분법을 넘어서었으며, 센의 분석 틀 *analytical framework*이 연구자들로 하여금 남아프리카 웨스턴 케이프 *Western Cape*의 세레스 *Ceres* 지역에서 농부들이 경험하는 것 같은 만성적 빈곤 이면의 복잡하고 상호연결된 요인들을 밝혀 내도록 돕는다고 강조한다.

키워드: 시민사회 *Civil Society*; 젠더와 다양성 *Gender and Diversity*; 노동과 생계 *Labour and Livelihoods*; 권리 *Rights*

들어가며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개발연구 분야로 도입되었는데, 그것의 유용성은 계속 논쟁이 되고 있다. 어떤 분야에서는, 배제를 형성하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과정을 강조하는 것이 학계와 정책입안자들이 배제와 박탈 *deprivation*의 원인과 결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사회적 배제 개념이 유용하다고 믿는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책적 개입(예를 들면, 드한 *de Haan* 1998; 고어 *Gore* 1995; 센 *Sen* 2000을 보시오.) 측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준다. 로저스 *Rodgers*(1995)는 과정을 강조하는 것이 박탈과 개발 간 연결에 대한 개발연구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정 개발패턴은 배제의 형성을 내포하는데, 그 안에서 경제적 성장은 특정한 지역이나 그룹에 집중되며, 이득은 국가 엘리트나 국제적 엘리트에 의해 포획된다. [그리고] 저렴하고 고분고분한 노동력에 대한 필요는 권리의 억압으로 이어진다.

드 투와처럼 이 개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만성적 빈곤이 어떤 배제의 과정이라기 보다는 특히 불리한 조건(disadvantageous terms) 위에 포섭(inclusion)된 결과(‘불리한 결합(adverse incorporation)’인 상황에서는 이 개념이 제한적으로 사용된다고 주장한다. 드 투와(2004)는 따라서

... ‘배제’와 ‘포함’이라는 단순한 반대-포지션(anti-position)을 넘어... 더욱 광범위하게 담론적이고 사회적이며 공간적인 권력형성 간의 연결에 대해 더욱 세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개념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나는 연구자들이 기존의 분석자원, 특히 아마르티아 센이 그의 저서 ‘사회적 배제: 개념, 응용과 검토(Social Exclusion: Concept, Application and Scrutiny)’(센, 2000)를 통해 제시한 분석 틀에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사회적 배제 개념이 개발도상국에서 빈곤을 분석하는데 가치를 더할 수 있다고 믿는다.

센의 분석 틀 Sen's analytical framework

센(2000)은 사회적 배제 개념이 박탈(deprivation)에서 관계적 이슈의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믿는다. 그는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 자체가 박탈인 배제(즉, 구조적 관련성을 갖는 배제)와, 그 자체로는 부정적이지 않지만 구조적 관련성을 갖는 다른 박탈을 야기하는 배제를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센은 땅이 없고 신용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후자 형태의 배제의 예라고 말하는데, 그는 이를 가리켜 ‘도구적 중요성(instrumental importance)’이라고 한다. 즉, 땅이 없거나 신용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그 자체로 가난을 초래하는 것은 아닐 지 모르나, 담보나 초기 투자 및 신용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소득-창출 활동을 이용할 수 없는 등의 인과적 결과를 통해 (소득 빈곤 같은) 다른 박탈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인과 사슬을 정교화하는 것은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설명해 준다. 적극적 배제와 수동적 배제를 구분한다면 이런 형태의 인과 분석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센에 따르면, 적극적 배제는 어떤 사람들을 특정한 기회로부터 배제시키려는 의도적인 정책의 결과이다. 반면, 수동적 배제는 ‘배제하려는 의도가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 박탈은 사회 프로세스 또는 정책 결정의 의도치 않은 결과인데, 예를 들면, 경제의 재구조화가 사회의 특정 영역에서 실업의 증가를 낳는 경우가 그러하다.

그러나, 센은 모든 경우의 박탈하는 힘을 배제라는 용어로 설명하려 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박탈의 많은 문제들은 비우호적 포섭의 조건 unfavourable terms of inclusion과 불리한 참여 adverse participation로부터 생겨난다... 어떤 이들이 배제되고 있는 (또는 최소한 남겨지는) 곳에서 문제의 본성과, 어떤 이들이 심하게 불리한 조건에서 포섭되는 - 아마도 그렇게 강요되기까지 하는 - 곳에서 다른 문제의 특징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센 2000).

달리 말해, 한 개인이 적절한 기본 역량을 획득하는데 실패하는 것은 배제 뿐 아니라 비우호적 포섭까지 포괄해 다양한 기원을 가질 것이다.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은 주류적인 프로세스와 제도가 박탈하는 힘을 창출하거나 가중시키는 방식을 불분명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비판받아 왔다(예를 들어, 앳킨슨 Atkinson 2000; 게디스 Geddes 2000; 그린 & 흄 Green and Hulme 2005; 레비타스 Levitas 1998을 보라). 나는 이 문제는 위에 간단히 서술한 분석 틀을 사용함으로써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 명제는 센의 분석 틀을 드 투와의 논문에 나타난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검증된다.

구성적 또는 도구적? Constitutive or instrumental?

앞서 말한 대로, 사회적 배제 개념은 잠재능력 capability의 박탈을 야기하는 프로세스에 주의를 집중한다. 불평등과 관계의 빈곤; 노동 시장, 신용 시장, 또는 보건 의료에서의 배제; 젠더-관련 배제와 불평등; 그리고 식량-시장의 빈곤은 모두 잠재능력의 박탈을 야기한다(센 2000). 이 목록은 모두를 포괄한 것이 아닌데, 다른 학파에서는 정치적 참여로부터의 배제를 사회적 배제의 중요한 차원으로 인정한다(예를 들어, 부르하르트 Burchardt 등 2002을 보라). 위의 7가지 요인들 가운데 5가지는 남아프리카 웨스턴케이프 지역 세레스 Ceres의 상황에 분명히 관련되어 있다: 불평등과 관계의 빈곤; 신용 시장에서 배제; 식량-시장의 빈곤; 정치적 참여로부터 배제; 그리고 젠더-관련 불평등함. 노동시장 또한 중요한 요인이지만, 이 경우 문제는 배제보다는 비우호적 포섭이다.

불평등과 관계의 빈곤은 어떤 개인이, 아담 스미스가 말한 대로, '수치심 없이 공적으로 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한다(센 2000). 불평등과 관계의 빈곤은 세레스 지역 농부들에게 있어 명백한 현실인데, 그들은 소비의 관행과 행동이 증가하는 문화적/물질적 중심성을 부여하는 사회에 충분히 참

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변화된 사람들이다(드 투와 2004).

세레스의 농부들은 또한 신용 시장에서 배제된다. '응답자들은 독립적인 기업가적 활동에 필요한 필요 자원에 거의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었다.'(드 투와 2004). 이에 더해, 많은 이들은 자신들의 식량을 기르는데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고, 때로는 시장에서 가용한 식량을 구매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 소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식량-시장 빈곤을 경험한다. 예를 들면, 드 투와의 보고에서, 소득 상위 5분위 안에서조차도 '응답자의 거의 40%가 한달에 한번은 굶주리고, 응답자의 절반은 1년의 반 또는 그 이상 동안 굶주린다고 답했다.' 한다.

세레스의 농부들 사이에서 빈곤은 또한 정치적 참여로부터의 배제로 특징되는데, 가난한 집은 지역 또는 국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드 투와 2004).

빈곤과 취약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기 위해 집합적으로 행동하기 보다는, 세레스의 가난한 이들은 어려운 시기에 곤경을 헤쳐 나가기 위해 비공식적인 네트워크 - 가족, 친구, 그리고 고용주 - 에 의존한다. (드 투와 2004)

이런 비공식적인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의지는 세레스의 가난한 집이 젠더-관련 불평등을 경험하는 한 가지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종 그러하듯이, 하루하루 생존을 위한 비공식적인 사회적 지원을 유지하는 부담은 '거의 전적으로 여성에 의해' 감내된다. 이에 더해, 특정한 젠더-관련 불평등함은 인종 불평등과 연결되는데, 농업 분야 정규직은 압도적으로 남성이고 유색인종인 반면, 계절적이거나 계약직 일자리는 대부분 여성이고 아프리카인이다.

이제까지 배제의 사례를 논했는데, 노동 시장의 경우, 잠재능력 박탈은 배제보다는 비우호적 포섭에 의해 야기된다. 드 투와가 설명한 대로, 웨스턴케이프에서 농업은 정규직 고용의 감소와 협력사^{third party}에 의해 공급되는 계약직의 증가를 겪었다. 예를 들면, 조사된 농장의 58%는 정규직을 축소하였고, 47%는 축소 또는 추가 축소를 계획하고 있었다. 게다가, 많은 계약직 근로는 계절 근로이고, 급여가 낮다. 예를 들면, 가구의 16%는 식품과 야채를 포장하는 일에 의존하는데, 이 일은 겨우 여름 동안만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농업 노동 시장은 적절한 생계를 유지하는데 충분치 않다... 응답자의 4/5 이상이 가구 수입이 빈곤선 아래라고 응답했다'.

센(2000)은 그의 구성적이고 도구적인 관련성에 대한 논의를 배제의 경우들로 국한하

였으나, 그 구분이 비우호적 포섭의 경우에 적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처럼, 식량-시장 빈곤, 불평등과 관계의 빈곤, 그리고 젠더와 인종 관련 불평등은 구성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공동체의 정상적 생활로부터의 배제와 스스로 부양하지 못하는 것(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박탈이기 때문이다. 젠더와 인종 관련 불평등은 또한 구성적 중요성을 지니는데, 그 불평등이 여성의 잠재능력, 특히 아프리카계 여성들의 능력을 제약해서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종류의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구성적 중요성에 더해, 식량-시장 빈곤은 또한 도구적 중요성을 가질 텐데, 만약 식량을 구입하지 못하는 것이 한 개인이 공동체의 정상적인 생활에 참여하는 능력을 제약하고, 확대하는 관습이 요구된다면 그러할 것이다.

신용 시장과 정치적 참여로부터의 배제, 그리고 노동 시장에서 비우호적 포섭은 모두 도구적 중요성을 지닌다. 신용 시장으로부터의 배제는 한 개인이 추가적 수입의 기회를 활용할 가능성을 제약해서, 식량-시장 빈곤에 기여하고 노동시장에서 비우호적 포섭을 창출하기 쉬운데, 이는 정치적 참여로부터의 배제가 하는 것과 같다. 노동시장에서 비우호적 포섭은 도구적 중요성을 갖는데, 그것이 식량-시장 빈곤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레스의 농부들이 경험하는 만성적인 빈곤은 불평등과 관계의 빈곤, 젠더/인종-관련 불평등, 그리고 식량-시장 빈곤의 조합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다. 식량-시장 빈곤의 주요한 원인은 노동 시장으로의 비우호적 포섭(unfavourable inclusion(또는 드 투와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불리한 포함-adverse incorporation)이고, 이는 신용시장에 대한 접근성 부족과 정치적 참여로부터의 배제에 의해 다시 강화된다.

이렇게, 쉐의 분석 틀은 세레스 지역 농부들이 처한 상황의 복잡함을 포착하는데 충분하다. 다음 섹션에서는 배제와 비우호적 포섭의 적극적이고 수동적인 형태에 초점을 두는데, 이런 분석적 구분은 정책 환경에서 주류적 프로세스와 제도가 잠재능력 박탈을 발생 또는 심화시키는 방법을 조명하는데 있어 모두 중요하다.

적극적 또는 수동적? Active or passive?

앞서 기술한 대로, 세레스의 농부들은 식량-시장 빈곤을 경험하는데, 그 주된 원인은 노동시장에 비우호적으로 포섭되는 것이고, 이는 정치적 참여에서 배제됨으로써 강화된다. 이 섹션에서는 이런 요인들이 배제 또는 비우호적 포섭을 생산하려고 의도된 결정이나 정책의 결과인지, 아니면 다른 관련 없는 정책의 의도치 않은 결과인지를 검토한다.

이 틀을 사용해 세레스의 농부들이 처한 상황을 분석하는 것은 수동적인 배제 및 비우호적 포섭이 국가적/국제적인 정책 결정이나 경향의 결과 발생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드 투와(2004)가 설명하듯, 지난 15년 이상 남아프리카에서 농업은 몇 가지 구조적 변화에 종속되어 왔는데, 섹터 내 경쟁을 제한하는 기존의 규제 틀을 해체하거나, 사회적 권리와 노동권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농산품 수출 섹터에서 다른 행위자에 대한 구매자 파워의 증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의 결과, 농부들은 '강화된 노동 및 사회적 규제'로 인해 높아진 직접/간접 비용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진입 장벽, 더욱 거세어진 경쟁과 커진 위험...'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런 압력에 대한 반응으로, 많은 농부들은 자신의 사업을 재구조화 해서, 정규직을 임시적/계절적 노동으로 대체하고, 동시에 기존에 농장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던 (공동 주택 tied housing 같은) 비금전적 혜택의 제공을 줄이거나 없었다.

분명히, 농업 섹터의 탈규제화 또는 국제 농식품 재구조화 같은 국가적/국제적 수준에서의 정책 개혁은 노동시장에 비우호적 포섭을 생산하려고 설계된 것은 아니었다. 반면에, 지역-수준의 반응은 비우호적 포섭의 적극적 형태로 간주될 수 있다. 드 투와(2004)는 '과일과 와인 농부들은, 증가된 압력에 노출되었지만, 대체로 어떻게 반응할 지 여전히 선택할 수' 있었는데, 많은 수가 자신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줄이는 반면 다른 작업자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증가시키는 것을 선택했다고 말한다. 동일하게, 농업 작업자들의 저임금은 개인이 식량을 살 수 없게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은 아니지만, 지역 수준에서 취해진 행동은 적극적인 비우호적 포섭의 형태로 보여질 수 있고, 그 안에서 작업자들은 공동주택 같은 혜택의 소멸을 더 높은 급여로 보상받지 못했다.

과거에, 백인이 아닌 남아프리카인들은 정치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배제되었다. 세레스의 농업 작업자들 agricultural workers이 현재 경험하는 정치적 배제는 과거 관행으로부터 온 반면, 국가적 수준에서 정치적 배제는 적극적 active이라기보다는 수동적 passive으로 특징된다 할 수 있다. 즉, 정부 정책은 더 이상 정치적 참여를 막지 않지만, 현재의 관행은 정치 과정에 관여하는 것을 북돋우지도, 촉진하지도 않는다. 국가의 정부가 자신의 권력 기반을 농촌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농촌 빈곤층의 근심거리에 민감하지 않고, 아무런 정치적 관여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 그룹 안에서 정치적 참여를 독려하지 않는 상황이다(드 투와 2004).

비자야락슈미 Vijayalakshmi(2001)는, 인도의 마이소르 Mysore에서 지정 카스트 Scheduled Tribe 여성들이 겪는 정치적 주변화에 대한 그의 분석에서, 이 여성들이 사회적/경제적 배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동안에는 정치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정 카스트 여성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비자야락슈미의 분석은 또한 세레스의 농업 작업자들에게도 적용된다. 경제적/사회적 영역에 비우호적으로 포섭된 가난한 농업 작업자들은 생존을 위해서 힘있는 후원자들과 동맹을 형성하도록 강요된다. 이런 후원자-고객 관계는 정치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수동적이게끔 하고, 대립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드 투와 2004). 이처럼, 지역의 관행과 비공식적 사회 프로세스는 배제의 적극적 형태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드 투와는 말하기를,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은 특정 지역 정부의 관료들에 의해 통제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정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것은 분명 지역 수준의 의사 결정에 대한 참여 의욕을 떨어뜨리는데, 아주 제한된 자원을 가진 개인들은 이런 '문지기'gatekeeper' 가운데 한 명의 성미를 건드리는 위험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배제에 대한 하나의 비판은, 그것이 주류적인 제도와 과정이 어떻게 빈곤을 형성하고 심화시키는가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반-빈곤 정책과 전략에 영향을 준다. 즉, 빈곤은 주류에 통합시킴으로써 해소할 수 있는 문제로 간주된다:

사회적 배제 담론처럼, 남아프리카에서의 정책 토론은, 문제에 대한 해법이 현대화 개혁의 과정과 일자리 창출, 증가된 글로벌 통합에 의존한다는 가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형성된다. (드 투와 2004).

“배제(또는 비우호적 포섭)가 적극적인가 아니면 수동적인가?”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국제적,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 수준에서 정책과 관행practices이 잠재능력 박탈capability deprivation에 기여하는 방식을 고려하도록 한다. 세레스의 농업 작업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분석에서 보인 것처럼, 배제와 비우호적 포섭의 적극적/수동적 형태를 식별하는 것은 만성적 빈곤이 특정한 행위자에 의한 의도적 선택, 그리고 거시적 정책 결정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조합된 결과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결론 Conclusion

사회적 배제 개념은 '내부자'와 '외부자' 간의 지나치게 단순한 구별 이상의 실체를 거의 제공하지 못하고, 더욱 중요하게는, 주류적 과정과 제도가 빈곤과 불평등을 창출하고 심화시키는 방식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비판받아 왔다. 사회적 배제처럼 이론이 있는 개념의 유용성을 평가하려면 그 개념이 연구자로 하여금 만성적 빈곤이라는 까다로운 경험과 관련되어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요인들을 밝혀낼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

추어야 한다. 이 글은 쉐의 사회적 배제 관점이 연구자들로 하여금 바로 그 일을 하게끔 돕는 몇 가지 중요한 분석적 구분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쉐는 빈곤을 폭넓은 개념으로 받아들여, 사회적 배제는 한 개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기본 역량을 획득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이유 중 단지 하나라고 본다. 사회적 배제를 빈곤의 부분집합으로 다루는 것은, 모든 것이 어떤 형태의 배제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보다, 비우호적 포섭이 중요한 인과적 영향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열려 있다는 것은, 연구자들이 드 투와(2004)가 비판한 대로 지나치게 단순화된 포함/배제의 이분법에 빠져들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둘째, 그 자체가 하나의 박탈인 배제(또는 비우호적 포섭)의 형태와, 필수적으로 부정적이지는 않으나 박탈을 야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쉐(2000)의 구분은, 연구자로 하여금 인과 사슬causal chain을 정교화 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복잡한 인과 요인으로 특징되는 상황을 분석할 때 중요한 능력이다.

쉐(2000)에 의해 밝혀진 세번째 분석적 구분은 적극적이고 수동적인 형태의 배제(그리고 비우호적 포섭)이다. 구성적이고constitutive 도구적인instrumental 관련성relevance에 대한 기존의 구분처럼, 인과적 영향이 의도된 정책적 결정의 결과인지, 아니면 다른 정책적 결정의 의도치 않은 결과인지를 아는 것은 적절한 정책 반응을 결정하는데 있어 유용하다. 인과요인이 배제(또는 비우호적 포섭)의 적극적인 형태임을 밝혀내는 것은, 의도적 배제 결정의 이면에 있는 논리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이로 인해 배제의 논리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토론할 수 있게 해 준다. 인과요인이 배제의 수동적 형태라고 규명하는 것은 그 의도치 않은 결과가 개선될 수 있는 방식에 주의를 집중시킨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배제의 적극적 형태와 수동적 형태를 구별하는 것이 연구자들로 하여금 국제적,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 수준에서 정책과 관행이 잠재역량의 박탈에 기여하는 방식을 고려하게끔 한다. 즉, 이것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주류적 과정과 제도가 잠재역량의 박탈을 창출하고 심화시키는 방식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효과적인 정책 반응은, 어떤 특별한 상황의 작업에서도, 인과 영향의 복합적 묶음the complex set of causal influences에 대한 깊은 이해에 의존한다. 쉐의 분석 틀은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개념적 도구일 뿐 아니라, 이제껏 널리 사용되지도 않아 왔다. 이 글에서 제시한 세레스의 농업 작업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분석은, 개발도상국에서 만성적 빈곤을 분석하는데 관심있는 이들에게, 기존의 분석 자원들에 대한 더욱 세련된 분석이 이루어진

다면, 사회적 배제 개념이 무엇인가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Atkinson, Rob (2000) 'Combating social exclusion in Europe: the new urban policy challenge', *Urban Studies* 37(5-6): 1037-55.

Burchardt, Tania, Julian Le Grand and David Piachaud (2002) 'Degrees of exclusion: developing a dynamic, multidimensional measure', in J. Hills, J. Le Grand and D. Piachaud (eds.) *Understanding Social Exclus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de Haan, Arjan (1998) 'Social exclusion: an alternative concept for the study of deprivation?', *IDS Bulletin* 29(1):10-19

Du Toit, Andries (2004) '"Social exclusion" discourse and chronic poverty: A South African case study', *Development and Change* 35(5): 987-1010.

Geddes, Mike (2000) 'Tackling social exclusion in the European Union? The limits of the new orthodoxy of local partner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4(4): 782-800.

Gore, Charles (1995) 'Introduction: markets, citizenship and social exclusion', in G. Rodgers, C. Gore, and J. B. Figueiredo (eds.) *Social Exclusion: Rhetoric, Reality, Responses*, Genev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ur Studies and UNDP.

Green, Maia and David Hulme (2005) 'From correlates and characteristics to causes: thinking about poverty from a chronic poverty perspective', *World Development* 33(6): 867-79.

Levitas, Ruth (1998) *The Inclusive Society? Social Exclusion and New Labour*, London: Macmillan.

Rodgers, Gerry (1995) 'What is special about a "social exclusion" approach?', in G. Rodgers, C. Gore, and J. B. Figueiredo (eds.) *Social Exclusion: Rhetoric, Reality, Responses*, Genev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ur Studies and UNDP.

Sen, Amartya (2000) *Social Exclusion: Concept, Application and Scrutiny*, Social Development Paper No. 1, Manila: Asian Development Bank.

Vijayalakshmi, V. (2001) *Politics of Inclusion: Scheduled Tribe Women*

저자

Ann Nevile lectures in social policy at the Asia Pacific School of Economics and Government,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ontact